



가뭄 확산...마른 눈에 물 공급

3일 오후 광주시 남구 대지동의 들녘에서 가뭄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협광주본부(본부장 박태선)와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 직원 및 청년회원들이 살수차와 고압분무기 등을 동원, 마른 눈에 물을 대고 있다. 대촌농협은 가뭄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급수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진상규명 광주 컨트롤타워가 없다

市·재단·기록관, 국과수 의뢰·자료분석 발표 제각각

“진상규명 적기인데...준비 안돼 우왕좌왕할라” 우려

“모두 따로 놓고 있어요.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모두 제각각입니다. 정부차원 내지 법률에 따른 진상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광주는 어떤 기관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지원, 뒷받침하는 구조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5·18진상규명의 적기(適期)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광주는 정작 준비가 돼있나 하는 의구심을 품는 5·18연구자들이 한몸이 아니다.

법률(제정 또는 개정됨)에 근거하거나 5·18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든 올해 안으로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인데, 광주 공동체 안에서는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 우왕좌왕하지 않을 준비가 됐느냐는 우려다. 구체적으로는 ▲5·18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5·18진상규명의 방향 설정 ▲5·18 관련 기록물 전문가 등 진상규명을 주도할 인재풀 구성 ▲5·18관련 기관 보유 문서 사전 분석 ▲확보해야할 5·18관련 문서 및 관련 인물 현황 등이 거론되나 핵심은 5·18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을 통한 컨트롤 타워 구성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컨트롤타워가 꾸러지고 기관별 역할 분담이 이뤄지면 나머지 과제는 어렵지 않게 방향이 설정되고 준비도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올해 초 ‘전일빌딩 10층 내부 총탄 흔적은 헬기 사격에 의한 흔적일 가능

성이 유력하다’는 국립과학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발표 이후 광주시, 5·18재단, 5·18기록관의 행보를 지켜본 5·18연구자 상당수는 ‘광주 공동체 내에 5·18진상규명 관련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구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일빌딩 헬기탄흔 감정결과 및 발표, ‘1980년 5월 발견된’ 발컨포 탄피 감정결과 및 발표, 옛 광주은행 본점 총탄흔적 감정 결과 및 발표, 미국 언론인 팀서록이 기증한 5·18 당시 미 극비문건 분석, 전두환 회고록 대응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5·18관련 기관이 제각각 주도하거나 발표하면 서다.

5·18연구자들과 5·18관련 기관 내부에서조차 “기관들이 5·18 진상규명이라는 단일 목표를 가졌지만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제갈 길만 가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특정 기관이 고생은 하는데 성과는 다른 기관이 가져간다는 비판)”, “5·18 진상규명만큼은 관련

전문가가 주도해야하는데,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광주의 의견을 묻으면, 광주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한 5·18연구자는 “5·18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을 컨트롤타워로 삼고 5·18을 잘 아는 연구자, (군)법 기록을 포함해 5·18관련 기록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기록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대·5·18연구소의 경우 학문의 자유가 무엇보다 존중돼야하나, 5·18 진상규명 관련 부분은 5·18재단 등 5·18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인 시기”라며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기관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색이 고려되면 37년 만에 다가오는 5·18진상규명의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5·18재단, 8일째 가처분 신청

5·18기념재단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는 8일께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5·18재단은 현재 김경호·임태호·정인기·홍지는 변호사가 작성한 가처분 신청서를 건넬분야 최종 검토 중이다.

신청서에 따르면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

부사장회의 대표자 그리고 조영대 신부(故 조비오 신부 조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중 일정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신청할 예정이다.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 5·18은 폭동이자 반란(1권 535쪽 등 18곳)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1권 379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1권 382쪽 등 2곳)는 취지의 내용 등이다.

신청인 측은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법원 판결문과 결정문, 헬기사격이 실재했다는 국립과학사연구원의 감정서 등 기록물도 재판부에 제출 예정이다.

5·18재단과 변호사들은 애초 전두환 회고록(총 3권) 전체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허위 사실이 명백한 사안에 한해서 조속한 조처가 취해지도록 ‘일정부분(5·18 관련 허위사실)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

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인들은 점 전 대통령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역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전두환 회고록 전체를 시장에서 퇴출해야 맞지만, 광주가 당사자이자 사실관계가 명확한 5·18 관련 허위 주장이라도 우선 삭제하는 쪽으로 가다가 접했다”면서 “5·18재단, 5·18연구자, 변호사들이 신청서 조안을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거쳐 이번 주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수습 9명 모두 다 찾을 때까지...”

딸 돌아온 엄마들 세월호 안떠난다

3층 중앙로비 수색 박차

“미수습자 9명을 모두 찾았다고 할 때까지 목포 신항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일 오전 세월호가 거지 된 목포 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화와 다은이도 이 결정을 받아 들였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마지막 미수습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수색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실종자라는 말이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세월호 선체 3~5층 객실을 수색해 미수습자 9명을 찾지 못하면 1~2층의 화물칸과 침몰해역을 추가로 수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3년간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에서 가족을 찾지 못한 아픔을 함께 겪어온데다, 앞으로도 남은 가족들이 또다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3층(3-6)구역에서 지난달 16일에 수습된 유골 중 1점이 국립과학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함께 실시한 DNA분석에서 단일

고 히다운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DNA분석 결과로 히다운양은 1143일 만에 엄마인 박은미씨 품으로 돌아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습된 미수습자는 단원고 고창석 교사, 단원고 히다운양과 조은화양이다.

한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44구역의 선체 수색 구역 가운데 32구역에 대한 1차 수색을 마치고 정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단원고 학생들이 머무른 것으로 알려진 4층 선체 수색이 마무리됐다. 일반인 객실을 수색해 미수습자 9명을 찾지 못한 1~2층의 화물칸과 침몰해역을 추가로 수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3층에는 일반인 객실이 있어 아직 찾지 못한 일반인 미수습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커 앞으로 수색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원고 히다운양이 예상과 다르게 4층이 아닌 3층에서 발견됨에 따라 아직 수색을 하지 못한 3층 중앙부에서 다른 미수습자들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새벽 아파트 화재

거동 불편 여성 숨겨

지난 3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아파트 안에서는 주민 A(여·4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50㎡ 아파트 대부분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8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아파트 이웃 주민 수십 명도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A씨가 주로 머물러 있던 침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혼자 사는 A씨가 거동이 불편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번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 소리도 앓바다

낙숫배·어선 또 충돌

지난 3일 새벽 1시25분께 여주시 남면소리로 남동방 해상에서 9.7t급 낚시어선 A호(여수선적)와 48t급 어선 B호(통영선적)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낚시 어선인 A호에 타고 있던 낚시객 10명이 사고의 충격으로 타박상을 입어 여수 소재의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은 간단한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 동호항으로 되돌아가던 B호에는 13명이 타고 있었으나 부상자는 없다고 해경은 전했다. 사고는 해상에서 낚시물을 하던 A호의 선미를 B호가 피하지 못하고 들이범으면서 발생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뺑 굽는 냄세 시비 끝 건물주-제빵사 주먹다짐 경찰서행



“뺑 굽는 냄세가 너무 심하다”며 제빵사를 폭행한 건물주와 이에 맞선 제빵사가 나란히 경찰서행.

○~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1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서 박모(59)씨가 자신의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빵집을 찾아가 ‘뺑 굽

는 냄세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제빵사 심모(36)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

○경찰은 박씨가 배를 들이대며 심씨를 밀치자 심씨도 이에 지지 않고 손바닥으로 박씨의 배를 때려 폭행했는데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싸운 것 같다. 두 명 모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

/전문제기자 ej6621@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t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